



## 어촌·어항·바다체험, 어업의 소득 새 전기마련

널리 알려진 말이지만 흔히 관광산업을 가리켜 '굴뚝 없는 산업'이라 일컫는다.

한국어항협회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올 하반기에 시험적으로 4차례 진행했던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갯벌 조개잡이, 새우잡이 체험과 수산물 구이 체험으로 구성된 어촌체험과 유람선 승선, 관광문화 유적지 답사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시험 행사가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국민과 어업인 사이에는 다소 상충된 여건이 없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소득 증대와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급격히 늘어난 관광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마땅한 해소책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반면 어업인 입장에서는 어장 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 어업여건 악화로 소득원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었으나 손쉽게 그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상호보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번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에 참가했던 도시인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어촌·어항·바다와 함께 어업인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색다른 경험을 통해 그 동안 갖고 있었던 수산업 전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떨쳐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관광소득 증대란 것이 거창한 투자가 뒤따르고 특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개발하기에 따라서 어촌·어항의 모든 것이 그대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술회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조합한 것이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해양

수산부와 주관한 한국어항협회의 최종 목표였음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노력이 뒤따른다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할 사항은 별도의 어촌관광지화만을 위한 특별 투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어촌·어항을 단순히 유흥지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종합개발과 어항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어촌관광사업의 핵심에는 항상 어업인이 위주되어야 만이 실질적인 어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광개발 기법이나 경영기법 등은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용역이나 아웃소싱을 통해 일정기간 수행한다면 어촌관광사업의 정착 시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복합공간, 다기능어항, 어촌관광단지 등 3개 유형의 어촌 통합관광 모델은 어촌관광과 관련, 새로운 개념의 도입으로 생각되며 시험시행 후 이에 대한 결과와 관련자료를 전국 모든 어촌·어항·어업인에게 제공한다면 수산업의 새로운 진로 모색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촌·어항·바다는 국민들이나 어업인 모두에게 여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한 1박2일 동안의 어촌체험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는 아마도 도시민들에게는 어촌관광에 대한 동기 부여와 어업인들에게는 어업 외 소득 창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확신한다. (어촌어항소식)

